

문화는 인간의 심성을 기르는 토양이고, 삶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는 꽃이며 화원이기도 하다. 만약 삶 속에 문화예술이 없다면 매마른 정서에 황무지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는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주며 사람을 아름답게 일으켜 주는 기동이자 지렛대 역할을 한다.

새 정부에게 걸었던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지만, 솔직히 일각에서는 첫 장관 임명 초부터 일찌감치 문화 분야는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순수문화계 종사자들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국가의 정책수립과 그 시행에 있어서도 실용이라는 단어에 상당한 의구심을 드러내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겉모습만 화려한 내실없는 정책의 불신으로 실체가 드러났지만 다양성의 측면에서 빈곤계층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의 미흡함도 있다. 요즘 사회만큼 복잡하고 변화에 빠른 시대에 어울리는 문화예술 정책의 시스템 문제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한마디로 말해 신뢰와 소통의 부재 때문이다. 문화정책의 수혜는 또 다른 일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되어 개별 단체의 이기주의만 더욱 확장된 우월한 시대에 직면해버렸다.

메일 살아가는 것도 힘겨운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조금의 우리 정부나 정치인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나 몹시도 짜증이 난다. 도대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체 정책이란 게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웃지 못할 일들로 자포자기한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온갖 폄파 잡았지 문화의 혈류가 민심의 구석까지 닿는 일은 애초부터 기대하지도 못했다.

급기야 우리의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작태에 분노까지 느끼게 한다. 10월 24일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문화계를 대표한다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진기자들을 향해 눈

을 부러리며 "짜지마 씨O, 성질이 뻔쳐 정말..."이라고 마치 시중잡배처럼 행동했다. '막말' 논란을 빚은 장관은 여론의 질타에 못기겨 결국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마치 폭력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실수로 덮어줄 수 있는 일일까. 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격적 모독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들었다.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

로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취재진에게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보이고, 이로 인해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관이 그것도 사색이 아닌 관련 의원들이 준비한 국정감사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욕설한 것은 전후가 어찌되었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 또한 거세다. 사과를 위해 야당과 국회 기자실까지 찾았지만 사건은 점차 확장되지 쉽사리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의식이 너무 예리하게 관두 서 있으면 남의 단점이 귀와 눈에 잘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모가나서 남과 다투기 일쑤다. 관용의 마음이 없어진 다. 상대방의 말을 포용하는 마음가짐이 삶에서 큰 구실을 한다. 그런 사람은 속이 넓고 부드러워 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곧 인(仁)이요 덕(德)이 아닐까.

<잡보장경>에는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추어라"라는 글이 있다. 자신 속에 있는 탐욕과 어리석음을 떨쳐버린다면 모두들 아름다운 미소와 감사의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세상만사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보면 한낱 보잘 것 없다. 오로지 과정만이 영원할 뿐이다.

그래도 문화는 당대 역사의 물결 속에서 탄생하는 보석 같은 시간의 결정체이다. 문화계 종사자들이 각자야 될 심성의 과제이다.

社說

승려노후복지가 중요한 까닭

조계종이 11월 6일부터 열리는 정기중앙총회에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0월 28일 실천승가회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승려노후복지와 관련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노후복지에 대한 종단 내 스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설문 결과가 발표됐다. 설문에서 노후복지 시설의 운영과 장소, 수발 문제 등에 대한 스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드러나 승려노후복지 제도의 시행이 종단적으로 상당히 중대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조계종 중앙총회의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정기중앙총회에 상정할 승려노후복지법의 초점도 노후의 수행과 주거, 의료 혜택 등에 맞춰져 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이나 노후연금보장 등 제도적인 복지 수혜를 위한 종단적 지원의 길도 함께 열어두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복지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재정의 총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총당은 법의 효력 발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종단적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한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 출가자들에게도 노년복지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다. 출가자라는 신분적 특성이 출가자를 복지의 사각지대로 몰아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에 의한 복지는 물론 종단 내에서도 특별한 복지대책이 필요하다. 수행과 전법의 원력이 옹골케 지켜져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장이 바로 노후복지이기 때문이다. 조계종의 승려노후복지법이 종법으로 제정되고 재정과 각종 시설 총당 등 관련 과제들이 결집될 없이 해결되길 바란다.

서불대 사태 지옥 스님 용단 절실

학생 35명의 무더기 제적으로 치달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 사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 측 선처만을 기다리다 제적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던 학생들이 학교 측의 강경한 태도에 못 이겨 강의실을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제적생들은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학교 측의 부당함을 토로하며 시위를 벌였다. "학교 문을 열어 달라"며 외치는 학생들이 택한 시위 방법은 퍼포먼스(만다라 테라피)와 오체부지였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재단이사장 지옥 스님은 "역행 보살들이 서불대를 널리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출가자다운 해석인지는 몰라도 책임 있는 위치에서 할 말은 아닌 듯 하다. 스님은 10월 29일 조후부 법회에서 "제적을 제적으로 내 뱉은 교수들이 살신성인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그간의 경과와 차치하고라도 교수에게 살신성인의 자세를 요구한 지옥 스님의 발언은 학생 35명이 학교 측과 일부 교수의 갈등으로 희생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용서는 가진 자의 여유요, 화해는 갈등의 회합이다. <육조단경>에는 "참수도인은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若眞修道人 不見世間過)"는 말씀이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서불대를 설립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다. 진정 '큰 것'을 위해 현재를 지혜롭게 풀어 '교육불사'에 차질이 없길 주문한다.

“감사하는 마음 모든 악연 녹이는 생명에너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쉽다. 감사하고 긍정하기 보다는 불평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다. 짙은 비구 학인스님이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 108가지를 썼다. 그 중 일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덕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⑧8 나에게 감사합니다

- 정진하는 나
-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 준 나에게 감사합니다
-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 행복한 나에게 감사합니다
-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준 나에게 감사합니다
- 올바른 길로 살아온 나에게 감사합니다
-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늘 솔직한 나에게 감사합니다
- 나의 단점을 듣고 화내지 않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배고파도 잘 견디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반찬이 없어도 잘 먹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분위기에 잘 휩쓸리지 않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다
- 헛되이 돈을 쓰지 않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모르는 것이 많아서 늘 배우려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유머감각이 있어서 남을 웃겨주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부끄러워 할 줄 아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적극적인 나에게 감사합니다

- 공심공체인 나
- 남과 다투지 않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뒤에서 남을 흉보지 않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려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타인을 위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타인에게 좋은 말을 해 주려 노력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타인에게 상처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타인에게 좋은 말을 들어도 우쭐해지지 않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나를 다듬어주는 훌륭한 도반들이 있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내가 없는 나
-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세속의 유희를 잘 참아주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법회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새벽에 일어나 예불할 수 있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계율을 지키려 노력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신도님들의 큰 은혜를 받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나보다 불교를 먼저 생각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수행자로서 계속 살아갈 나에게 감사합니다
- 수행자로서 위기에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오늘도 오체부지할 수 있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 출가자인 나에게 감사합니다
- 나에게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생긴다' 라고 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악연을 녹일 수 있는 생명에너지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부정적인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지금 마음의 입력을 바꾸어 아름다운 자성의 빛을 찾아 보면 어떨까.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혜천법사

-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혜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태용 문화재 고 건축

최저예산으로 전통을 거르지 않고 책임시공, 관리,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木手 - 사람들은 절 보고 이렇게 부릅니다. ◆ 木壽 - 전 이렇게 부릅니다.

나무에 목숨을 불어 넣는 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집을 짓는 전 木壽입니다. 제가 현금으로 시주를 할 수는 없지만 목수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22년간 해온 기술로 제가 직접일을 하기 때문에 불사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것은 작은 시주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 : 대웅전(3포, 5포, 7포등), 요사채, 범종각, 삼성각 등 작은 일이라도 제가 주어진다면 정성을 다해 내집 처럼 짓겠습니다.

도 편 수 : 이 형 찬 함장 H · P 011-9515-5587 / 공장 055) 852-5537 (팩스겸음) 경남 사천시 서포면 궁항리 840-4

제가 현금으로 시주를 할 수는 없지만 목수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22년간 해온 기술로 제가 직접일을 하기 때문에 불사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것은 작은 시주라 생각합니다.